

● 자연재해보험 “Cat Bond제 시급”

8월 이후 풍수해 등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서도 歐美日의 Cat Bond 즉, 자본시장에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재해 채권’의 발행·판매 논의가 활발히 개진,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개발원을 비롯한 대한재보험 등 국내 손보업계와 Swiss Re·Munich Re·Gerling Re 등 세계적 재보사, Goldman Sachs·Merrill Lynch 등 투자은행, 그리고 보험브로커사인 Marsh·Aon·Guy Carpenter·Jadin·Willis·Miller 등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보험사들은 한결같이 Cat Bond의 발행·판매가 요긴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국내의 금융보험계는 Cat Bond제의 국내 도입 필요성으로 ①연간 약 2조원에 달하는 자연재해 ②행정부·국립방재연구소 등에 의한·풍수해 보험제도 시행방안과의 연계성 ③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자본시장 투자기들에 또 다른 투자기회 제공 ④손보험계의 담보력 한계 및 리스크헷지 다양화 그리고 ⑤글로벌 경제체제하 세계적 Cat Bond 추세를 꼽았다.

— 금융보험통신(2000.8.10)

● 세계보험사 CEO들 “인터넷신드롬”

인터넷의 향후 보험마케팅 영향에 대해 세계각국 보험사 CEO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경영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美 앤더슨컨설팅과 LOMA가 공동으로 구미일 등 세계 각국 213개 보험사 최고경영층을 대상으로 한 「e-이코노미 환경하 생보시장의 승자」라는 내용의 의견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이 결과 보고서는 세계 각국 CEO들이 21세기 보험마케팅의 최대 변수가 인터넷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2년간 판매채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부문별로 35~47%, 다소가 33~49%, 미미할 것 7~16% 등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5년간으로 기간을 확장해서 묻는데 대해 매우 클 것으로 보는 측이 21~33%, 다소가 49~58%, 미미가 12~28%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판매가 기본적으로 One-Way가 아닌 Two-Way의 무형상품 특유의 쌍방향 마케팅 특성이 있고, On-Off 라인간 판매채널의 상승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인터넷이 미치는 부문별 영향 견해에서는 향후 2년간 ①수수료 감소와 모집조직 감소가 클 것라고 보는 측이 57%로 가장 높았고 ②온라인 MS 증가 54% ③판매채널 코스트 감소 39% ④신규고객 개척 35%로 나타났다.

그러나 큰 영향에서 향후 5년간은 그 순위가 달라져 ①신규고객 개척이 33% ②온라인 MS 증가 30% ③판매채널 코스트 감소 29% ④모집조직 감소 27% ⑤수수료 감소 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서는 최근 보험개발원이 생·손보사 실무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DM·TM·CM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보험판매 비중에서 오는 2005년 내 보험종목별로 편차가 있으나 최고 40~60%대까지로 본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조사결과 생보의 경우 건강·사망보험을 중심으로 올해 10%, 2005년엔 연금까지 포함 최고 50%까지 비중을 보일 것 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손보의 경우도 올해 최고 10%까지, 특히 자동차·여행보험에서 절반 이상이 2005년엔 최고 60% 수준을 전망했다.

— 금융보험통신(2000.9.2)

●은행중심, 방카슈랑스 급류 “보험충격파”

은행의 보험판매, 즉 방카슈랑스가 조기 도입될 전망이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자회사 형태로 보험사가 편입될 예정이어서 은행의 계열 보험사 상품판매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철저한 소비자보호규정을 마련 은행의 보험판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26일경 보험개발원 주최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 단계적인 방카슈랑스 허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권의 충격을 감안, 엄정한 판매·광고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방카슈랑스 방안은 ▲보험상품은 은행 예금 또는 채무증서 및 은행에 의해 보증되는 상품이 아니며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을 포함, 투자리스크가 존재하고 ▲은행의 신용공여 여부와 보험상품 구입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은행의 신용공여 여부가 자신 또는 자회사 보험상품을 구입하거나 비계열보험사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의 어떠한 연계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 같은 공시내용

을 전달받았다는 서면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판매장소를 은행 예금 수취장소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예금수취 담당자가 보험 구입을 원하는 고객을 보험담당자에게 소개할 경우 실제 보험판매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보험판매 자격을 획득해야 하며, 보험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당장 전면 도입하기는 국내 여건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권의 충격을 완화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해외의 방카슈랑스 도입사례 연구 검토 및 10월말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보험통신(2000.10.2)

●일본 상반기 화재건수 33,865건

자치성소방청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상반기(1~6월) 일본 전국 화재건수는 33,865건으로 1일 186건, 약 8분에 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물화재 18,045건, 임야화재 2,042건, 차량화재 3,987건, 선박화재 68건, 항공기화재 3건, 기타 9,720건이다. 원인별로는 放火 3,995건(11.8%), 담뱃불 3,913건(11.6%), 放火 의심 3,130건(9.2%), 곤로 2,839건(8.4%) 순이다.

전년대비 총 화재건수는 1,812건(5.7%), 사망자는 1,237명으로 29명(2.4%) 증가하였고, 손해액은 73,212,023천엔으로 7,010,540천엔(8.7%) 감소하였다.

— 보험매일신문(2000.10.10) ㉞